

함께하는 인천지부 소식

소통과 단결로
다시 세우는 인천지부!

■ 발행: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 발행인: 김현동 ■ 발행일: 2026년 4월 6일



자랑스런 금속노조의 역사를 딛고, 희망의 한 해를 만들어 갈 것 결의 14기 1년차 인천지부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인천지부는 지난 3월 19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총 85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4기 1년차 사업을 확정하고 각종 위원을 선출했다. 금속노조 투쟁에 적극적으로 복무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인천지부의 주요 사업목표로 1) 원청교섭 쟁취 및 지부집단교섭 정상화, 2) 지회 및 조합원과 소통강화, 3) 미조직 사업을 통한 조합원 확대 및 조직력 강화를 결정했다.

금속노조가 스물다섯살이 되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산별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산업전환의 파고 속에 담대하게 대응해 가야 하는 때다. 또 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전국적 투쟁에 복무함과 동시에 각 현장에 맞는 전략을 세워가야 한다. 나아가 사업장을 넘어 인천지역 전체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것이 인천지부 조직력 확대로 이어지는 가슴 벅찬 순간을 마주하자! 인천지부와 각 지회는 정기대의원대회를 시작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활력있는 한 해를 열어갈 예정이다.

여성노동자의 삶과 노동의 권리를 위하여!

3.8세계여성의 날 사업보고

1908년 미국 여성노동자 수만 명이 벌인 시위에서 유래한 '세계 여성의 날'은 현재까지 여성들의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의 날로 이어져오고 있다. 생존권을 상징하는 '빵'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상징하는 '장미'는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의 상징이다.

인천지부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 3.8전국노동자대회참가, 미조직노동자 대상 공단선전전, 여성조합원 대상 선전전 등 여러 사업을 진행했다. 각 지회는 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3.8의 의미가 담긴 엽서와 장미꽃을 전달하며, 여성의 날을 알렸다. 또 미조직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선전전을 각 공단 부근에서 진행하며 여성노동권 쟁취의 필요성을 알려내고자 했다.

성의 차이가 차별이나 혐오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권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3월 8일 단 하루에 멈추지 않고 365일간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소식] 함께가는 지부-지회

01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운영위수련회 진행



[간략 지회 소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윤한영)는 전국의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무노조 경영 삼성'에 첫 깃발을 꽂으며 2013년 결성했습니다. 제조생산 중심이었던 금속노조가 제조서비스 조직화에 대한 고민을 확장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출범과 함께 센세이션한 집회, 투쟁문화의 열풍을 만들기도 했던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오늘도 씩씩하게 활동 중입니다.

지난 3월 8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운영위 수련회를 통해 지회의 1년차 사업계획 및 주요 현안들(직군역량평가, 당직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지부 임원들도 수련회를 방문하여 지회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한층 더 탄탄한 지회를 만들기 위해 향후 조직진단 등의 사업을 지부, 지회가 함께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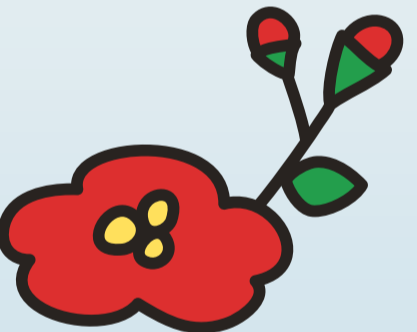
동광기연지회 확대간부수련회 진행



[간략 지회 소개] 동광기연지회(지회장 오제원)는 도어트림을 만드는 곳으로 한국지엠 부품사입니다. 한국지엠이 축소를 거듭하며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사업장의 잦은 이전, 폐쇄, 화재와 같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인천지부의 전통있는 지회로 굳건히 노동조합을 지켜내며 연대투쟁에도 늘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광기연지회는 3월 20일 전/현직 확대간부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2025년 임단협 사업평가와 함께 20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인천지부 임원들도 참석해 간부들과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6년 단체교섭 승리를 힘차게 결의했습니다.

4.3제주민중항쟁맞이 인천순례단 참가하기



- 삼성전자서비스인천지회 남택선 사무장

삼성전자서비스 인천지회 14기 사무장 남택선입니다. 올해 처음 사무장을 맡고 정신없이 AS 현장을 누비며 살다 참가한 이번 제주 4.3 순례는 간부로서 첫발을 떤 참 무거운 배움의 자리였습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인천지부와 한국지엠지부 동지들과 어깨 걸고 보낸 2박 3일의 소회를 짧게 남깁니다.

이번 순례는 우리 삼성전자서비스를 비롯해 동광기연, 한국ITW, GMTCK, 한국지엠비정규직, 부평공단지회 등 인천지부 동지들, 그리고 한국지엠지부 동지들이 한데 어우러져 발 맞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작업복은 다르고 만드는 제품도 다르지만, 제주의 아픈 역사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금속노동자'임을 느꼈습니다. 특히 북촌리 너븐송이 애기무덤 앞에 섰을 때의 먹먹함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차가운 땅에 묻힌 어린 생명들을 보며, 평범한 일상을 잃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가슴아픈 일인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이제 제주에서 본 진실을 잊지 않고 우리 삼성전자서비스 인천지회 현장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매일 아침 수리 가방 메고 흠뻑 젖어지는 우리 동지들, 고객 집 문턱 넘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동지의 손부터 먼저 맞잡는 단단한 지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서툴고 부족한 점 많은 신임 사무장이지만, 제주에서 배운 연대의 정신 잊지 않고 우리 지회와 지부 동지들을 위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걸어준 인천지부와 한국지엠지부 모든 동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탄압이면 항쟁이다! 이제 현장에서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너븐송이 애기무덤 : 북촌대학살때 희생된 아이들의 시신이 매장된 무덤



관덕정 : 1947년 3월 1일 관덕정 앞 경찰의 발포로 시작된 4.3항쟁